

# OTT·유튜브 예능, 시청자는 불편해



'SNL 코리아(왼쪽)'·'피식대학'의 한 장면.



와 함께 맛있는 할매 맛

## 지역 비하·실내 흡연 등 시선 끌기 위한 자극적 내용 여과없이 방송 시청자 비판 쏟아져...전문가 "악자 향하는 조롱의 칼날 코미디 아냐"

"여기 중국 아닌가", "인간적으로 (동네가) 너무 재미없다", "(여기서는 도저히 웃길 수 없어서) 코미디언으로서 한계를 느꼈다",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 발령받으면...여기까지만 하겠다." ('피식대학' 출연자 발언 중)

거친 입담으로 웃음을 유발하던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에서 촬영한 콘텐츠에 담긴 경솔한 언행이 불거졌다.

많은 구독자를 모아 '웹 예능의 성공 사례'로 꼽히던 피식대학의 지역 비하 논란은 '메이드 인 경상도' 시리즈 중 하나로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에'란 제목으로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앞서 경상도 주요 도시를 찾아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전했던 것과 달리 영양에서는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영양의 한 빵집에서 햄버거빵을 먹으면서 "여기 롯데리아가 없다 그랬거든. 젊은 아(에)들이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걸로 대신 먹는 거야"라고 말했다. 마트에서 산 블루베리 젤리를 가리키며 "할머니 맛.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댓글에는 "보는 내내 불편했다", "예의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표현이 천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독 취소가 이어져 318만명이던 구독자는 약 17만명 줄어든 301만명이 됐다.

피식대학 측은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피식대학 외에도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활동하는 예능인의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베터랑 코미디언' 이경규도 유튜브 채널에서 진돗개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르르르 이경규'에서 1990년대 인기 예능 프로그램 '양심 냉장고'를 모티브로 한 콘텐츠 '존중 냉장고'를 진행하는 이경규는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뺨타켓"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아 '존중 냉장고'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경규는 진돗개가 동물보호법이 정한 입마개 의무 맹견 품종이 아닌에도 입마개를 하는 것이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대형견들도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유독 진돗개에 대해서만 입마개 미착용을 반복해 지적했다.

영상은 공개된 후 즉각 논란이 됐다. 시청자들은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하거나 "진돗개보다 큰 사모에드나 다른 대형견에겐 '귀엽다'고 한 반면 진돗개에겐 성질 있어 보인다 고만 했다"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존중냉장고' 제작진은 "반려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꾸밈없는 '날 것'의 모습으로 독특한 예능 캐릭터를 구축한 기간84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 9회 호스트로 나섰다 촬영 중 실내 흡연을 하는 장면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유튜브나 OTT 같은 경우에는 자율 규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극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니 혐오가 만연하거나, 무례한 내용들이 필터링 없이 방송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코미디는 권위에 맞서 강자들을 풍자할 때 빛이 되는데, 그 비판이나 조롱의 칼날이 약자에게 향한다면 코미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제 69회 호남예술제 입상자-피아노

〈심사위원〉 김연 (광신대 교수) 서윤진 (광주교육대 교수) 선수정 (경상대 교수) 이성은 (전남과학대 교수) 조성경 (전남과학대 교수)	58 윤준성 (동신초4) 61 장수아 (소룡초4) 75 황서울 (라온초4) 76 박서영 (빛누리초4) 85 박하운 (라온초4) 91 김루민 (블로초4) 96 박민정 (양지초4) 98 정세하 (신대초3) 105 김해율 (블로초4) 106 정가은 (연제초3) 107 이아은 (여수송현초4) 108 안유민 (연제초3) 117 정소율 (진제초3) 131 홍지우 (광주중앙초4) 148 윤세아 (전주지곡초4) 153 정다인 (블로초3) 155 김민지 (지한초4) 157 윤서연 (블로초3)	30 박세연 (지평초3) 34 김수민 (주월초4) 37 김보라 (블로초3) 39 백서준 (문정초4) 41 손희곤 (치평초3) 44 이재영 (하백초4) 47 한승민 (경양초3) 54 유시현 (한울초4) 57 정도현 (조봉초4) 62 박강인 (성황초4) 69 한민준 (은빛초4) 77 이승후 (블로초3) 80 박정인 (라온초4) 92 이지윤 (목포이로초3) 100 이혜원 (금부초4) 101 김지인 (순천성동초4) 103 조하영 (금부초4) 104 나세현 (광주계림초3) 114 최은솔 (광주학은초4) 118 최재유 (블로초4) 143 강라희 (광주송원초4) 146 최지은 (광주교대광주부설초4) 147 오하람 (광주수창초4) 150 송승원 (지한초4)
---	---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손 베이커 감독 '아노라'

### '에밀리아 페레스' 감독상·여우주연상 4명 공동수상

손 베이커 감독의 미국 영화 '아노라' (Anora)가 25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7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베이커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텐저린' (2015)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2017)로 칸영화제 감독 주간을 초청됐고 이후 '레드 로켓' (2021)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트랜스젠더, 위키 가장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룬 영화를 선보여온 그는 '아노라'에서 젊은 여성 스트리퍼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러시아 갑부와 결혼한 그가 시부모로부터 결혼 생활을 위협당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 세계 영화 매체가 매긴 평점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스크린데일리 별점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3.3점을 받는 등 프리미어 상영 이후 호평을 끌어낸 작품이다.

심사위원장이 그레타 거위의 호명으로 무대에 오른 베이커 감독은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간지 모르겠다"면서 "이 상을 모든 성매매 업 종사자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은 인도의 여성 감독 파왈 카피디아가 연출한 '올 위 이매진 에즈 라이트'가 가져갔다. 뭄바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두 여성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프랑스 감독 자크 오 디아르는 '에밀리아 페레스'로 심사위원대상 트로피를 가져갔다. 이 영화에 출연한 아드리안나 파즈,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셀레나 고메즈, 조이 살다나는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

칸영화제에서 한 영화가 두 개의 주요 부문을 수상한 것도, 여우주연상을 네 명이 함께 받은 것도



감독상 손베이커 감독, 여우주연상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남우주연상 제시 플레먼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에밀리아 페레스'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멕시코 카르텔 보스와 그를 돕는 여자들의 이야기다.

감독상은 '그랜드 투어'를 연출한 미켈 고펬스가, 각본상은 '더 서브스턴스' 시나리오를 쓴 코랄리 파르자가 각각 받았다. /연합뉴스

## 김연자 "데뷔 50년...옛그제 같아요"

### KBS '더글로리' 기념 공연

"제가 올해로 데뷔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김연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고맙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연자(사진)가 데뷔 50주년을 기념한 공연 '김연자 더 글로리' (이하 '더 글로리')에서 가수로서 걸어온 길에 대한 소회를 털어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영상 편지를 보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지난 25일 오후 9시 15분 방영된 KBS 2TV 특집 프로그램 '더 글로리'에서 김연자는 "항상 신인의 기분으로 임하기 때문에 50년이 꽤 긴 세월인데도 저한테는 (데뷔가) 그냥 옛그제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냈다.

김연자는 또 "가요의 한 페이지에 김연자라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뿐이다"라며 "한 마디로 참 열심히 여기까지 여러분들 성원 받으면서 무탈하게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신을 향해 "김연자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연자는 이날 신곡 '고맙습니다'와 '어머니의 계절'을 선보였고, '아침의 나라에서', '에메이징 그레이스', '셀럽이 되고 싶어' 등을 불렀다.

특히 김연자는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어머니의 영상 편지가 스크린에 공개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영상 편지에서 어머니는 일본 활동으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딸 김연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드러냈다.

영상을 본 김연자가 감정을 추스르고 국악인 박



에리와 함께 '여자의 일생'을 부르자 관객석에 있던 김연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대를 지켜봤다. 이미지가 원곡을 부른 '여자의 일생'은 제목처럼 여성의 굴곡진 인생사와 한을 담은 노래다.

이날 공연에는 여러 가수가 김연자와 함께했다. 가수 바다는 김연자의 인기곡인 '아모르 파티'를 불러 관객의 박수를 받았고, 이 밖에도 홍지윤, 라포연, 박애리, 남예슬, 라벤타 등이 김연자와 함께 무대를 꾸렸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4.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